

특별선교주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2~4

세계 성찬주일  
기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 특별선교주일

# 세계평화주일 기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아래 이야기는 모잠비크의 세계성찬주일 장학생 조르즈 사이테와 그의 아내 산드라의 이야기입니다. 사진 제공: 조르즈 사이테

**모**잠비크 남부의 연합감리교회 캄바인미션스테이션(Cambine Mission Station)에서 자란 조르즈 사이테는 세계선교부가 제공한 세계성찬주일 장학금의 도움으로 공교육 석사 학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여덟 살 때부터 어머니와 여섯 남매를 부양하기 위해 어부가 되어야 했던 그에게 일어난 작은 기적입니다.

사이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16년 동안 계속된 내전이 처음 시작되었던 1980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두 살 때 목숨을 잃으셨고, 내전은 제 가족이 가진 집, 가축, 농장을 포함한 모든 것을 앗아 갔습니다. 저는 매우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일곱 남매를 홀로 돌보셔야 했던 어머니는 의식주 문제와 학비를 해결하시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전쟁은 저희 가족을 극심한 가난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쓰디쓴 현실은 사이테의 삶에 있었던 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노력과 결단력 또 캄바인에 있는 교회의 도움으로 그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거쳐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가 겪은 상실에 연연하지 않고 그는 내전의 원인과 영향을 공부했고 전문적 영역에서 그러한 파괴적 갈등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이테는 “저는 모잠비크와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 일어나는 내전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부패, 차별, 투명성 부족,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 장치의 부재 등으로 나타나는 무능한 통치 체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학위 과정을 통해 통치 체계 향상을 위해 쓰일 유용한 도구들을 얻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모잠비크의 평화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세계성찬주일 예물은 미국 및 다른 국가 출신의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위한 세계성찬주일 장학금과 전 세계적 포용성, 다양성, 형평성, 접근성 증진을 위한 훈련 과정의 지원금으로 활용됩니다. 이 기금은 총회 세계선교부와 고등교육사역부가 관장하며 재능과 자격을 갖춘 전 세계의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바꾸는 이들이 되게 합니다.

### 후원 방법:

체크 메모난에 “세계성찬주일”이라고 적어 소속 교회에 헌금하세요.  
UMC.org/SSGive에서 온라인으로 후원하시거나 월 정기 후원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